



목포문학박람회

2023. 9.14.[목]~17.[일] 목포문학관, 북교동 일원

제15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박화성소설상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박화성소설상 심사위원

부 문	성 명	약 력
박화성 소설상 (장편 소설)	구병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편소설 『위저드 베이커리』 외 다수 · 중편소설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 외 다수 · 창비청소년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김유정문학상 수상 외
	복도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 2005년 『문학동네』 등단 · 『눈먼 자의 초상』 외 다수 · 슬라보예 지젝 등이 쓴 『성관계는 없다』(공역) · 현대문학상 수상.
	손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21세기문학』 신인상 ·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 『그들에게 린디합을』 외 다수 · 한국일보문학상 외 다수 수상
	심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F와 함께라면 어디든: 키워드로 여행하는 SF 세계』 · 『우리는 SF를 좋아해: 오늘을 쓰는 한국의 SF 작가 인터뷰집』 ·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등
	우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 『프로테우스의 탈주』 외 다수 · 대산문학상, 팔봉비평상, 소천비평상, 김환태비평상 수상.
	이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199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공모로 등단 ·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외 다수 · 동인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

박화성소설상

심 사 경 위

우찬제(문학평론가)————— 2

심 사 평

구병모(소설가)————— 3

복도훈(문학평론가)————— 4

손보미(소설가)————— 5

심완선(문학평론가)————— 6

우찬제(문학평론가)————— 7

이기호(소설가)————— 8

격년으로 시행하던 목포문학상 장편소설 공모를 ‘박화성소설상’으로 새롭게 명명하며 매년 시행하기로 한 첫해에 모두 203편이 응모되었다.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소설가 구병모, 손보미, 이기호, 문학비평가 복도훈, 우찬제, SF비평가 심완선 등 6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6월 초부터 심사 독서를 시작했다. 응모작들은 여성 노동자의 성장과 각성을 다룬 리얼리즘 서사부터 그리스 신화를 비튼 포스트모더니즘 서사, 여러 형태의 퀴어 서사, 그리고 기후재앙 등 환경 위기 문제를 다룬 SF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웠다. 심사 독자들은 6월 22일 다음 8편의 본심 진출작을 확정했다.

「그라이아이」 「오동」 「우리 뺨에 바람이 보드라웠을 적에」 「지구재앙탐사의 해」

「칸의 후예」 「클럽 하이킨」 「프레너미」 「하늬마음휴양병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독회는 7월 7일 오후 2시 문학과지성사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후보작들을 읽은 소감을 전반적으로 나누면서 각자 더 눈길을 주었던 작품들을 언급하기로 했다. 뭔가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새로움이 덜한 작품, 방송 드라마를 닮은 것 같은 소박한 작품, 의도는 알겠지만 형상화나 구성이 아쉬운 작품,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그만큼 한계도 뚜렷해 보이는 작품 등 여러 논의를 거쳐, 8편 중 「그라이아이」, 「지구재앙탐사의 해」, 「프레너미」 등 3편으로 최종 후보를 좁힌 다음 더 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구 행성 차원의 핵심 관심사인 기후재앙 문제를 성실하게 탐구하며 다루었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고 유기적 구성이 다소 취약한 「지구재앙탐사의 해」, 완성도가 가장 높아 보이지만 다루는 서사 문제에 비해 서술 양식이 단순해 보이는 「프레너미」,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서사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지만 플롯 면에서 다소 아쉬운 「그라이아이」… 이런 식으로 작품의 장단점을 토론하다가, 「그라이아이」와 「프레너미」를 마지막 테이블 위에 두기로 했다. 두 작품에 대한 의견은 오랜 시간 팽팽하게 엇갈렸다. 3:3의 구도가 긴 시간 지속되다 보니 심사위원 수를 짝수로 한 주최 측을 원망(?)하기도 했다. 두 차례나 정회하면서 세 시간 가까이 심사 시간을 이어갔다.

「프레너미」는 이중 자아, 의식과 무의식, 친구이면서 적일 수 있다는 오래된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의 복잡성에 비해 해결 방식이 안이하고 단성적으로 보인다는 점, 오히려 그 문제의 상흔을 더 파고들어 무의식의 심연으로 잠행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민했다. 「그라이아이」은 좀처럼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갑자기 형성되는 이퀄립의 자장이 예기치 않은 창의적 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사례를 보이는 작품인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연결되지 않는 서사소를 내장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프롤로그에 비해 1, 2, 3부를 통합하는 서사의 축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원초적 폭력과 일상적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의 주제에 관한 인류학적 탐색은 다채로운 폭력성이 여전히 자

행되는 동시대의 산문정신의 어떤 핵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가능성과 한계까지 심사 독자들이 끌어안을 수 없겠는가, 깊게 숙의했다.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1회 박화성소설상을 수상자로 결정된 「그라이아이」의 작가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수상의 영예를 다음으로 미루게 된 다른 응모자들도 머잖아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원한다.

구병모(소설가)

「프레너미」는 작가가 착실하게 설정해둔 골인 지점까지 적당한 긴장감을 안고서 도착할 수 있는 소설이다. 관계의 본질을 단언하기에 가까운 frienemy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을 때,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정서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낯선 것이 내 옆에 있었다는 시작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신뢰감이 드는 클리셰다. 여기에다가 나와 상관있는 나 아닌 존재들(나만 볼 수 있는)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면, 독자로서는 앞으로의 전개가 긴박해지리라는 데에 좀 더 기대를 갖게 된다. 이 혈겁거나 무너진 관계의 퍼즐을 푸는 데에 반드시 아일랜드와 유학의 경험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공간 배경 설정과 서사가, 인물의 심리와 믿음이 훼손된 과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일종의 포즈로 간주 될 수도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상당 부분 바쳐지는 듯하다. 하여 분위기에 사로잡혀 따라가다가는 인물의 다소 급작스러운 분석적 자기 성찰이라는 결말에 동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마지막 챕터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심플하면서도 유려했다고 느꼈으므로, 수많은 응모작 가운데 결과적으로 내 손안에 제일 오랜 시간 미련과 함께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라이아이」은 지체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1부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그 대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방향을 헛다리 짚게 되기도 한다. 끝까지 예상 혹은 기대대로 진행되는 서사가 없다는 점에서 놀라운 소설이다. 때문에 1, 2, 3부 사이의 유격이 좀 있지 않은가 싶었고, 비록 그것이 작가의 의도라 하더라도 3부가 언뜻 동떨어진 서사처럼 읽히는 것이 한 편의 소설에 있어서 바람직할까 고민했던 게 사실이다. 1부의 주요 인물들은 이렇게 퇴장해도 괜찮은 걸까? 상당히 집중하지 않으면, 또한 1부의 인물에게 주어진 고단한 삶에 지나치게 마음을 주어버리면, 이 소설이 3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에 가까운 것임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나의 첫번째 독과 시도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결국은 3부에서 그려지는 백희의 여정이 성글게나마 소설의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앞서 배치된 서사들과 조금은 다른 독법을 요구하는 바람에 독자로서 따라가기가 다소 까다로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익숙한 안정감을 주는 소설과 조금은 심란한 흔들림을 주는 소설 가운데, 이후에 어떤 소설이 올지 궁금해지는 쪽은 후자였다. 당선자분께 축하를 전하며, 지금 딛는 발걸음이 깊고 무거운 족적으로 남기를 기원한다.

복도훈(문학평론가)

장편소설이 갖추면 좋을 세 가지 조건 또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투고작들을 읽었다. 첫째, 서사적인 견고함이나 참신함을 갖추고 있는가. 둘째, 동시대적 감각이나 의제의 핵을 채굴하고 주제화하는가. 셋째, 문장과 문체에서 감각적인 혁신을 꾀하는가.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꼴을 갖추게 된 생각이었다.

본심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작품은 「프레너미」 「기후재앙탐사의 해」 「그라이아이」 이었다. 「프레너미」는 아이러니가 소설의 성패를 좌우한 작품이었다. 신빙성 없는 일인칭 남성 주인공의 서술이 구축한 서사적 안정은 사랑과 결혼의 이율배반을 일관된 아이러니로 잘 다룬 결과이겠다. 그러나 전반부의 흥미로운 환상-음모 서사를 후반부에서 뒤집는 공정 또한 아이러니였음에도 긴장과 흥미가 반감되었다. 일인칭 자기반성 서사의 내재적 한계였을까, 그 완성도가 되려 문제가 된걸까. 「기후재앙탐사의 해」는 내겐 가장 흥미롭고 문제적이었으나 심사에서는 문제적이기보다는 문제가 적지 않은 작품으로 거론되었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을 화두삼은 SF로, 세계관 설정의 견고함과 설계의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 내내 흥미롭게 읽었다. 이 소설에는 다른 서사 장르와 변별되는 기후소설(Cli-Fi) 만의 특징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변론하고 싶었다. 기후재앙을 가져온 주요 원인에 대응하는 후반부의 서사적 반전은 예상되긴 했지만 맞닥뜨렸을 때는 좀 놀라웠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는 배경과 전경이 따로 없지 않을까. 그 견고한 세계구축에 비해 인간 삶 이외의 세계에 대한 탐색에서 서사가 다소 인색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자의 건투를 빈다.

「그라이아이」를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서사로 폭력에서 돌봄에 이르는 주제를 문제적으로 부각시킨 점은 최근 한국소설의 경향성을 반향하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흐름에 안주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만한 게 이 소설의 구성과 문체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세 개의 서사가 한 편의 소설로 재배치될 때, 서사적으로 또 주제적으로 어떠한 내적 연관을 맺고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내게는 다만 그것들이 독자에게 쉬이 떠넘겨진 결과라기보다는 독자의 상상을 되려 촉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을 축하한다.

손보미(소설가)

여러모로 심란한 여름이다. 지구는 펄펄 끓고,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죽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 듣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노출되었다. 심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심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나는 ‘싸운다’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했다.

「프레너미」와 「그라이아이」은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작품이었다. 최종에 오른 열 편 중에서 이 두 작품으로 추리는 데까지는 심사위원 간의 이견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 작품을 고르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프레너미」는 한 남자가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자신의 거짓과 대면하는 일이다. 시간이 흐르기에 변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는 척하다가 큰 코 다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돌려 놓으려고 안감힘을 쓰다가 큰 코 다치기도 한다. 큰 코 다치는 이야기, 나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다. 진실이 실토되는 순간의 쾌감! 이 소설에는 분명히 그런 류의 쾌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소설을 읽을 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실이 실토되기까지의 과정,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절한 깨달음. 나는 「프레너미」가 우스꽝스러운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처절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그라이아이」은 "보이지 않은 폭력의 세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오싹하고도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다만,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이 소설의 내적 긴밀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내 생각에는 장편소설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프레너미」보다 「그라이아이」를 지지한 것은 이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연약성 때문이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관성적인 삶의 고리를 거부하지만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거짓과 싸우는 동시에 이 세계의 거짓과도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것, 내게는 그게 너무 중요했다. 이 소설 속에는 그러한 끊임없는 시도와 예정된 실패의 역학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그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당선자님에게는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고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작가님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심사평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적었지만, 결국, 이 소설을 쓴 작가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안다.

심완선(문학평론가)

심사는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다.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하고 싶다는 의지와, 좋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가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박화성소설상의 얼굴이 될 작품을 고르기 위해 심사위원 모두 고민이 많았다. 작품의 우열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반면 당선과 낙선은 현실적으로 여러 차이를 낳는다. 덕분에 당선작을 고르며 이번 상의 취지나 독자의 기대는 물론 문학이 어떠한지 하는지까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어, 개인적으로는 한층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이 되었다.

예심에서는 광주 등 전라도를 배경으로 암흑했던 군사정권 시절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상당수 접했다. 근과거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리며 생생한 대사와 지역 사투리로 글맛을 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한국사를 할킨 시대적 폭력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면서도, 이미 문학으로 여러 차례 되풀이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새로이 이를 다룬다면 과거를 재구성하는 단계를 넘어 지금 시점에 해당 과거를 선택한 이유를 담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를 도입하며 ‘악’과 ‘적’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도 보였는데, 어떤 당위든 작품 내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더불어 폭력에 노출된 남성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 여성 인물을 활용할 때, 폭력의 복잡다단한 결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길 권하고 싶다.

본심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기후재앙탐사의 해」는 SF로서 설정이 큼직하고 장면이 화려해, 영상매체라면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될 부분이 보였다. 다만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물과 시점을 관리하는 솜씨가 안정적이지 못해 난잡하게 읽혔다. 「프레너미」는 자기기만으로 가득한 화자의 지질한 모습과 화자가 무의식중에 만든 유령들의 조합이 어울려 매끄럽게 진행됐다. 전형적인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인 그의 진상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순간에는 기대한 대로 쾌감이 있었다. 다만 화자가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결말이 앞서 쌓은 흐름과 상충하는 탓에, 이야기가 품은 가능성을 다 펼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해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라이아이」는 인간관계 내에서 은은하게 발생하는 착취를 그리는 점에서 호소력이 있었다. 비교적 동시대의 감수성과 공명한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구성상 3개의 짧은 이야기가 결합하며 모종의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기대가 들었으나, 각 부가 원활히 달라붙지 않고 당초 설계한 바를 온전히 형상화하지 못한 듯해 다소 망연스러웠다. 그럼에도 재료가 많아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해석의 재미를 낳는다는 점이 계속 마음을 건드렸다.

당선과 낙선에 관계없이 작품을 완성한 분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며, 본 상이 앞으로 회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다수의 문인을 배출한 목표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우찬제(문학평론가)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을 읽을 때 나는 서사적 질문이 의미심장하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그럴듯하고, 그 서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또한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간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부디 2020년대 한국 소설의 새로운 등대가 나타나기를 발원하게 된다.

「지구재앙탐사의 해」는 지구 환경과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한다. 가장 절실한 질문에 속한다. 절실하기에 작가는 성실하고 탐구하고 역동적으로 구성하여 기후 위기에 관한 극적인 상상력을 펼치려 했다. 그러나 목적 지향적 플롯을 견지한 작품이 보일 수 있는 작위적인 서사 전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후 재앙에 지구 행성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처하는 소수의 선민들 중심의 서사 또한 환경 인문학적 측면에서 반성적 성찰을 요하는 대목이다.

「프레너미」는 친구이면서 적이거나 적이면서 친구인 관계의 곤혹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질문한다. 그런 오래된 과제에 도전하면서 작가는 주체 밖의 타자 및 주체 안의 무의식과 긴밀하게 조응하면서 흥미로운 레퍼토리를 다채롭게 엮어낸다. 무의식의 역동성을 서사 기제로 활용한 것도 주목된다. 후반부에 가서 서술자가 자신의 이전 서술을 전복적으로 뒤집으면서 허구를 통해 진실을 새롭게 탐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양면적이다. 반성적 성찰로 보이기도 하지만, 단성적인 닫힌 결말로 이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독자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제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라이아이」는 속절없이 타자화되고 배제되는 폭력의 희생양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질문한다. 나/우리와 조금 다른 낯선 이방인을 타자화하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인류학적 관습을 넘어서 인간의 품격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탐문한다. 이 또한 근원적인 질문이기에 작가는 현실과 환상을 횡단하는 판타지를 상상한다. 거기서 샤먼의 복화술사 같은 환상적 이야기꾼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엮이지 않을 것같은 장면, 시간, 캐릭터들을 가로 지르며 느슨한 3부작을 엮었다. 1부의 초점 인물 주나가 2, 3부와 밀도 있게 연계되지 않는 점이 특히 아쉬웠다. 그러나 상상력의 폭과 깊이, 서사 문제의 적절성 및 산문정신의 진정성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작가의 탄생을 예감케 한다. 보이는 한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과감히 한 표를 던지게 한 작품이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기호(소설가)

예심 과정에서부터 내가 눈여겨본 작품은 「오동」이었다. 지역의 중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남자의 수치와 좌절, 모욕과 상처의 연원을 파헤쳐나가는 이 소설은, 마치 감정의 파노라마를 지면 위에 상영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인간의 오욕과 그에 따른 맹목의 해부도를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후반부였다. 연극적 형식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주로 예술가)의 허위성을 서사화했는데, 그 부분이 소설의 밀도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나 역시 그 점엔 동의했다). ‘오동’이라는 인물과 연결시켜 ‘반대급부’의 상징성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장편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길 권한다. 아무래도 후반부에서 힘이 빠진 인상이었다.

본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옹호한 소설은 「프레너미」였다.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남자에게 보이는 ‘헛것’들의 연원을 찾아가는 이 작품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플롯과 설득력 있는 배경 묘사, 매력적인 캐릭터 등등, 장편소설이 지녀야 할 장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특히 사건의 시초가 되는 아일랜드 삽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픽진성과 현장감이 살아 있었다. 나는 이 소설이 당연히 당선작이 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단계에서 더 많은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이 작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다. 공모전은 어쩔 수 없이 상대성이라는 형식을 갖는다. 이런 결과는 이 작품의 문제가 아닌, 다른 작품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 그러니 부디 실망하지 말고 꼭 완성된 책의 형태로 이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 주길. 인상 깊게 읽은 독자의 작은 바람이다.

이번 <박화성소설상> 당선작은 「그라이아이」이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인상적인 도입부를 잊지 못한다. 아일랜드 이탄지에서 발굴된 고대 한국인의 미라인 ‘백희’의 머리와 그 과정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낯선 서사적 설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좋은 소설은 단순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이 작가 역시 그 설정 위에 다시 주나와 문정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폭력성, 연구팀을 이끄는 유 박사와 그의 딸인 영의 욕망의 배치도를 덧씌웠다. 그러니까 ‘백희’는 그 모든 관계의 근원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영점의 오브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내가 선했 이 작품을 지지하지 못한 이유는 마지막 3부 때문이었다. 백희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이 ‘0’지점은 어쩐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이전의 서사들과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그것 역시 이전 인물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뻔한 응답에서 벗어난, 이 작가만의 적극적인 목소리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고, 결국 그 의견에 동의했다. 어쩌면 나의 짐작이 구태의연한 쪽으로만, 기존의 서

사 체계 방식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니, 과연 이 응답은 새롭고 젊은 감각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정공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더 새로운 작품으로, 독자들의 예상을 깨는 작가로 오랫동안 곁에 남아주길 바란다.